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하느님의 크신 자비

오늘은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생
생한 희망을 누리는 것도 하느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불멸의 상속 재산을 얻게 된 것도 하느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자비의 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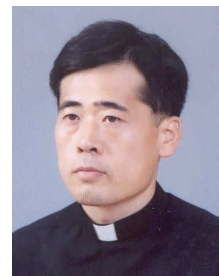
육화는 자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2코린 5,21) 성자께서는 성부의 품을 떠나시어, 우리의 인간 조건 속으
로 들어오셨습니다. 공생활 중에 예수님께서서는 자비를 실천하시고 자비를 설교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심으로써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마태 9,9~13 참조)

예수님의 죽음은 자비의 절정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자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비의
말을 내뱉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오
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자비의 사도로 파견하시며, 성령 안에서 자비를 전달하라고 말씀하
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자비는 전례 안에서 날마다 전달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참회 예식을 행한 다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를 간구합니다. 우리 죄를 철저히 인정한 다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마음 속 깊이 울부짖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평화를 주소서.” 영성체 때에,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양께 자
비와 평화를 간구 드립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자비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며, 아바의 자비를 간구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쉽게 잊어버리시고 쉽게 용서하십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송을
바치면서, 우리는 ‘자비의 어머니’께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양살이 끝날 때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
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이청준 F. 하비에르 신부 | 교구 기획관리국장



제 1 독 서 사도 2,42-47
화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 서 1베드 1,3-9
복 음 요한 20,19-31

주일 진레



제3차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진선진 마태오 신부/ 반송 본당 주임



산티아고 길을 걷다가 보면 수많은 해바라기가 한쪽을 바라보면서 정렬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한 곳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러나 모든 인간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겠지.

베드로

주님, 당신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말씀 드렸을 때, “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에 힘입어 물 위로 겁 없이 걸으려고 하다가 그만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 든 저를 보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당신의 말씀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성모 마리아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걷기가 어려웠던 아들 예수님이 얼마를 걷지 못해 결국 넘어지고 만다. 단순히 십자가의 무게를 넘어서서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을 세상의 죄를 대신 다 짊어졌는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다. 단지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아들 예수님의 고통 속에 직접 함께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곁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예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람들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려 하면 할수록 그런 나에게 매 순간 더 많은 짐을 내 어깨에 지운다. 누군가가 나서서 용기를 내어 말하면 그 말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지우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짐을 내 어깨에 지우는 것이다. 그렇게 모인 짐이 십자가라는 힘든 무게가 되어 나를 그만 주저앉게 한다. 주저앉은 나에게 가해지는 채찍보다 얼마나 짐을 대신 더 질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의 무게가 나를 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짊어짐으로 너희가 편하고 가벼울 수 있다면,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기꺼이 일어나 지고 가고자 한다.

하느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시편 136,1)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올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하느님 자비 주일’이 선포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하느님의 자비임을 권고하시며, 2015년을 자비의 특별 희년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자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도와주러 오시며, 우리가 간청하는 도움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느님 자비의 첫 단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놓인 나약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당시의 현존과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움을 주십니다.”(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 「자비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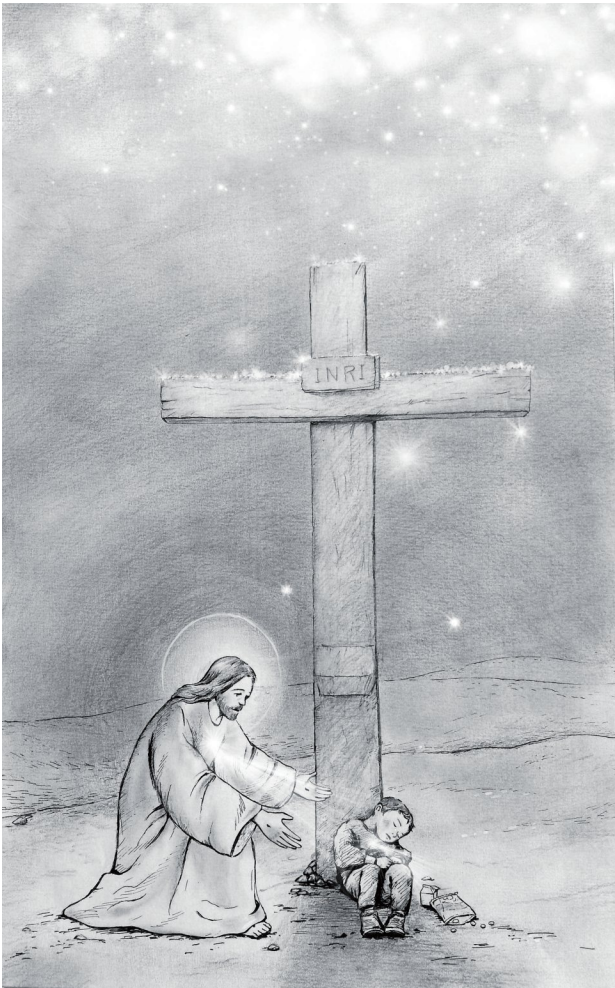
하느님의 자비로 수도 성소로 부르심을 받은 수도자들은 매번 성무일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주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쁘고 슬픈 많은 일들을 겪으며 좌절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서러웠던 우리 모두를 위로해주시고(시편 136)”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처는 주님의 자비가 들어갈 틈을 만들어주고, 실패와 나약함은 주님 자비의 자리가 됩니다.

어느 날 수도원으로 날아든 본당 신부님의 편지를 보고,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진짜 어설프기 짝이 없던 것이 커가면서 본체가 드러났구나. 무학산에서 흘러내리는 도리동 강가 거름 무더기에서 옥잠화가 피어난 썸이다. 성당 담벼락에 기대고 서 있을 때에는 정나미가 떨어져 두 번 다시 보기 싫었던 애였으나, 그동안 크면서 몸의 때도 마음의 때도 말끔히 벗겨져, 미미만 남았으니 예뻐 보일 수밖에...”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느님 자비가 나를 가르멜 수녀로 불러주셨고 앞으로도 그 자비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나에게 야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말씀은 힘을 줍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거는 것,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성녀는 “가르멜 수녀들이 그리스도와 일치될 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성무일도 후에 저희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수녀원 내의 성 요셉상 앞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촛불을 밝힙니다. 최전선에서 질병과 맞서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저희도 봉쇄 안에서 기도하고 삶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마산교구 실시간 방송 미사 안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bit.ly/성당 유튜브 검색: 마산교구

일 시	전 레	주 레
4월 19일(주일) 10:30	부활 제2주일 미사	총대리 최봉원 신부
4월 26일(주일) 10:30	부활 제3주일 미사	진주지구장 신은근 신부
5월 3일(주일) 10:30	부활 제4주일 미사	사목국장 이원태 신부

▶ 당일 생중계 이후에도 교구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